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이전지 기념공간 설계

박노천* · 안승홍**

*(주)다산컨설턴트 조경부 ·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Memorial Design for Relocation Site of Steam Locomotive in Jangdan Station on Kyong-Eui Railway

Park, No-Chun* · An, Seung-Ho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san Consultant Co., Ltd,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yong-Eui Railway used to be one of the major cross-country railways connecting Busan and Shineuiju. Being the central axis of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in Korea, it also signifies a symbolic meaning of the people's desire for the unification of divided Korean peninsula. A steam locomotive that had stopped in Jangdan Station was bombed out during the Korean War. The locomotive has been neglected and covered with rust in DMZ over a half century, and now is becoming a historic reminder of divided Korea.

The initial design approach was based on the three main perspectives of the relocation plan of the steam locomotive in Jangdan Station which is designated as the registered cultural asset no. 78: historical significance, role of a monumental space, and influence on and from the local culture and tourism. Three design subjects were especially highlighted which would represent the identity of the cultural asset, the steam locomotive.

First, a vertical watching deck was installed to provide various view points toward the locomotive while ensuring the security of visitors as well as the cultural asset.

Second, the Dokgae bridge area has good design potentials being on the railway. However, the site is too narrow. Thus, a new ramp and a stairway were placed responding to the existing topography so that the pedestrian environment could be secured.

Last, to respect the local context where the locomotive was originally located, mulberry trees in the locomotive were transplanted as well. Flowering plants were planted around the display area for better ventilation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n the locomotive.

Key Words: Monument, Selection of Site, Design Element, Preservation and Display, Historical Education

국문초록

경의선 철도는 부산과 신의주를 오가던 한반도의 주요 종단 철도로서 한반도 물류, 교통의 중심이었으며, 동시에

분단국가의 하나됨을 염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의선 장단역에 멈춰선 증기기관차는 한국전쟁 당시 피폭되었다. 이 기관차는 녹슨 채 반세기 넘게 비무장지대 안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남북분단의 역사적 상징물이다. 본 연구는 등록문화재 제78호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의 이전에 따라 역사적 관점, 기념공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문화·관광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설계의 주안점은 기본적으로 증기기관차라는 문화재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3가지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였다.

첫째, 독개다리 지역은 경의선 상에 배치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기존 지형을 이용한 경사로와 계단 등을 설치하여 일정한 보행환경을 유지하였다.

둘째, 수직적 관람데크를 설치하여 전시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하도록 하였으며, 관람공간은 관람객의 안전과 문화재의 보호를 고려하였다.

셋째, 증기기관차가 원래 있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차 내에 자생하던 뽕나무를 이식하였으며, 전시공간 주변으로는 통풍을 위해 초화류를 식재하여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주제어: 기념성, 이전적지 선정, 설계요소, 보존과 전시, 역사교육

I. 서론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기록되어 있다. 1950~53년에 거쳐 일어난 이 사건은 과거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도 영원한 상처로서 남아 있을 것이며, 또한 잊지 못할 사건으로서 기억될 것이다. 과거의 사건과 일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개인의 심상에 자리잡고 있는 사적인 것이나, 사회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공동의 경험이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임진각 관광지는 연간 380만 명이 찾는 경기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기존 “안보-망향”의 침체된 관광 방문지 이미지를 “평화-환경-웰빙”의 에듀테인먼트와 체험의 장으로 전환하고자 경기도 및 파주시에서는 임진각 관광지 주변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남북 화해무드와 더불어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단, 남북 철도·도로 건설, 개성관광 등 협력 사업이 진행되면서 임진각 관광지가 향후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로 입지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문화재이자 문화재청에서 포스코와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통해 보존처리한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를 독개다리, 도라산 평화공원 등 임진각 주변 관광지에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임진각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념공간 설계에 대한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기념공간 선정과 설계요소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고, 둘째, 보존처리된 증기기관차의 이전 적지 선정과정을 통해 기념공간의 적지 후보선정과 선정방법을 구명하고, 셋째,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전시 및 역사적 사건의 기념물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육 방안을 구명하고자 한다.

II. 기념공간 설계의 이해

1. 기념성과 기념공간 설계

1) 기념성과 기념공간

과거의 사건과 일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심상에 자리잡고 있는 사적인 것이나, 사회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공동의 경험이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상석, 2001)으로서 기념하려고 하는 대상과 주제에 관한 것과 기념의 목적, 즉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념성은 Monument란 말의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념비를 세우는 행위 자체가 어떤 대상을 기념하여 기억하고자 하는 것(한갑석과 박한규, 2003)이다. 모뉴먼트가 결국 ‘영구적 가치가 있는’, ‘불후의’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듯이 기념공간은 시간적 초월성을 지니며, 따라서 영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내구성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기념공간은 추모, 회고와 치유, 의식, 집단적인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서 지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영혼을 위로하고, 공동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념공간의 선정

기념성을 공간에 부여하는 설계는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진 특정 장소나 기념물 주위를 대상으로 기념성을 부가하여 공간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전혀 새로운 대상지를 찾아 상징적인 의미를 설계로서 표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등록문화재 제78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를 보존처리 후 다른 장소로 이송하여 전시 및 보존해야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지 후보를 검토하고, 선정된 공간의 장소적 맥락

과 연계한 설계는 설계방식과 설계태도에 있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유병림(1996)은 “기념해야 할 대상이나 기념성 자체를 확인하고 재정의하며, 공간구도를 설정하는 일 자체가 새로운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개념적인 수준에서 기념대상이나 공간이 구상된 이후에 기대되는 효과를 막연히 설명하거나 요구하는 정도에서 설계를 착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설계과정에서 참고하고 이용해야 할 실마리를 찾는데 상당한 분석력과 감각이 필요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설계가 우수한지 여부가 바로 이러한 통찰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형, 위치, 좌향, 수목들과 같은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조경설계에서 기념성을 창출하는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은 이전적지 선정에 있어 원 대상지의 시·공간적 맥락성은 연관성을 찾는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하게 된다.

3) 기념공간의 설계요소

어떤 사물을 공간에 기념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나 가치를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서 공간에 남긴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뜻이 매우 애매모호해서 기념하려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단순히 객관적인 기록이나 판단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이미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념성이라는 개념을 설계가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조성하게 된다(유병림, 1996). 특히 전쟁기념공간은 다양한 설계개념을 담을 수 있으며(이상석, 2010b), 설계가가 어떻게 창의적이고 예술적으로 기념성을 구현하는가에 의해 달라진다.

한국전쟁 메모리얼에서 기념성을 구현하는 설계요소들에 대해 이상석(2010a)은 설계개념, 입지와 공간적 특성, 디테일의 종류와 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설계개념은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설계요소로서 희생자 추모, 국가적 정체성, 공공성, 전쟁의 경험, 전쟁의 설명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전쟁기념공간의 입지와 공간특성은 6·25전쟁 중 전투가 벌어졌던 산에 위치한 전적지나 6·25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기념성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디테일은 설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도입요소의 형상화를 통하여 결정되는데 희생자 추모를 위한 추모비, 전승을 기념하는 기념탑, 기념전시관, 야외무기전시장, 참전국기 등이 주로 도입되었다.

한편, 와이저만(Wasserman, 1998)은 기념공간에 도입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요소는 예술작품, 건축물, 기념비, 수목, 폭포, 조명, 기념식물, 야생동식물, 역사적인 물건 등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도입요소는 단순히 기념공간을 구성하는 실체만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전방위적 매체 역할을 하게 된다.

2. 기념 대상인 경의선 증기기관차의 역사적 고찰

경의선 철도는 부산과 신의주를 오가던 한반도의 주요 종단 철도로서 수많은 지선이 연결되어 전국 철도 중에서 운수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교통상 대동맥이었다. 경의선 증기기관차는 한반도 물류, 교통의 중심이었으며, 동시에 분단국가의 하나됨을 염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의선 장단역에 멈춰선 증기기관차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개성역에서 황해도 한포역까지 올라갔다 전세가 악화되어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 1950년 12월 31일 밤 경의선 장단역에서 피폭되어 탈선하여 그 자리에 멈춰 섰다(그림 1 참조)¹⁾. 이 기관차는 검붉게 녹슬고 부식된 채로 반세기 넘게 비무장지대 안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남북분단의 뼈아픈 역사적 상징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등록문화재²⁾로 등록하였다. 본 연구의 주 기념대상인 증기기관차 화통은 역사적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물건에 해당하며, 증기기관차에 자

표 1. 경의선 및 화통의 역사적 경과

구분	경과 사항
1908. 4.	부산-신의주간 직통 급행열차 운행
1945.	서울-개성간 74.8km 구간으로 단축운행
1950. 12.	폭격에 의한 파손(장단역)
1951. 6. 12.	운행 중단
2000. 6.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경의선 복원사업 논의
2003. 6. 14.	경의선 연결식 개회
2004. 2.	등록문화재 제78호
2005. 9.	‘1문화재 1지킴이’ 협약(문화재청/포스코/파주시)
2006. 11.	임진각 관광지 내 보존처리센터로 운송
2007. 7.	보존 장소 선정을 위한 전문가 현지조사
2009. 1.	보존처리작업 완료
2009. 6.	장단역 증기기관차 이전지 일반 공개

그림 1.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

자료: www.cha.go.kr

라던 뽕나무는 야생식물로서 증기기관차 내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나 시간의 흐름에 대한 역사 인식의 흔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III. 대상지의 이해

1. 대상지 범위 및 입지 여건

대상지의 범위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을 마정리 일원독개다리 일원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노상리 일원의 도라산 평화공원 등 3개소를 설계 대상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9년에 사업을 시행하였다.

대상지가 입지해 있는 파주시는 한반도의 중서부, 경기도의 서북부에 위치하여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가 관통하는 남북교통의 요충지이다. 한편, 파주는 동쪽으로는 양주시와 연천군, 서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 남으로 고양시, 북으로 개풍군이 면해 있다. 1번국도 서울과 판문점을 잇는 통일로와 행주대교와 임진각을 잇는 자유로가 주접근도로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문산에서 연천으로 이어지는 37번 국도가 연결되어 있다(그림 2 참고).

2. 자연환경

파주시 지형은 장방형 도서고지의 형태이며, 감악산, 파평산, 개명산, 봉서산, 심학산, 월룡산 등에 에워싸인 산간분지이다. 북서부는 군사경계지역으로 그 사이를 임진강이 흐르고 있

그림 2. 광역 접근 체계도

범례: — 국도, — 국지도, — 지방도, +++++ 철도

며, 주변은 대체로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어 임진각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다.

연평균기온은 10.9℃이며 증기기관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은 연평균 2,054mm, 연간 강수일수는 145.7일로 집계된다. 상대습도는 59.1~85.2%로 나타났으며 평균 68.9%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대상지는 임진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기후를 관측한 문산관측소 인근보다 습도 및 안개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으므로 증기기관차의 전시·보존에 유리하도록 통풍과 주변 습도의 최소화 방안이 요구된다.

3. 관광 및 문화재 환경

파주시의 관광자원은 판문점/제3땅굴/도라산전망대, 임진각 관광지(통일공원), 오두산통일전망대/통일동산 등의 평화교류자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객 이용현황은 평화교류(안보)관광이 56.0%, 휴양레저 및 도시위락관광이 30.4%, 역사문화관광이 7.4%로 평화교류관광의 인지도가 높다. 평화교류관광 중에서도 임진각관광지와 통일전망대의 이용객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파주시의 문화재는 22점으로 그중 등록문화재는 4점이다. “경의선 증기기관차 화통”은 등록문화재 78호로서 원위치인 장단역에서 보존처리 작업을 위해 임진각 관광지로 옮겨졌으며, 임진각 관광지 주변에는 자유의 다리, 통일연못 등이 분포되어 있어 이들 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IV. 기본구상

1. 기본구상의 방향

장단역 증기기관차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상흔으로 남아있는 대표적 기념물로서, 현대에 시대적 아픔을 전해주는 시공을 초월한 매개물이다. 이 기관차는 민간인통제선 바깥쪽에 입지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그림 3 참조).

1) 기념공원(Memorial Park)의 성격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폭된 증기기관차의 기념성을 부각하여 한국전쟁 전·후와 현재까지의 역사적 흐름과 공간의 기억을 유지하도록 한다. 증기기관차의 역사적 소재를 활용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담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한국전쟁 기념공간으로서 회상하였다.

2) 민족 분단과 통일의 역사적 접근

우리 민족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과거와 미래의 역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분단 전 경의선 철도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남북을 관통하는 민족의 대동맥으로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통일과 평화적 측면이 크다 할 수 있다. 피폭된 증기기관차의 모습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참담했던 현실을 시사할 수 있다.

3) 주변 안보교육자원과의 연계

지역문화·관광적 측면에서 통일연못, 자유의 다리 등 주변 안보교육자원과 연계되도록 하고, 이들 자원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도록 하였다.

2. 설계대상지 선정과정

앞서 기본구상의 3가지 방향을 기반으로 장단역 증기기관차를 보존처리한 후 전시할 대상지 후보를 검토하였다.

1) 대상지 후보 및 선정과정

설계대상지 후보로는 원위치인 “장단역”, 새로운 화합을 기념하는 “도라산평화공원”, 경의선상이면서 한국 전쟁의 역사가 함께하는 “독개다리” 그리고 새로이 조성되어진 “임진각 관광지”를 이전대상 후보로 검토하였다(그림 4 참조). 특히 도라산 평화공원의 경우, 대상지 내 4개소가 위치 선정 후보지이며, 각 후보지별 입지 특성(그림 4의 d 참조)을 살펴보면, ①지역은 주변 습지에 의한 기관차 부식이 우려되며, ②지역은 기존 상징물과 상충되는 위치에 있다. ③지역은 동선의 흐름상 가벽과 가로수에 가려지지만 호기심을 유발하는 경관 조성이 가능하고, ④지역은 전시관과 근접하여 시선이 분산될 수 있다.

후보 대상지 선정과정에서는 다음 3가지 관점을 우선적으로

a: 기념공원의 성격

b: 민족분단과 통일의 역사접근

c: 주변 안보교육자원의 연계

그림 3. 기본구상의 방향

a: 후보 대상지 위치도

b: 독개다리

c: 임진각관광지

d: 도라산평화공원 내 후보지

그림 4. 설계대상 후보지

검토하였다. 첫째, 우선 증기기관차의 문화재적 가치를 살릴 수 있으며, 공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한다. 둘째, 복원된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훼손방지 및 관리·운영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셋째, 이용객에게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과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더 많은 이용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용을 및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다.

앞서 설계대상지 후보로 추천된 4개소에 대해 위에서 제시한 검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증기기관차의 원위치인 “장단역”은 장소적 가치 측면에서는 월등하나, 민간인통제선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에 제약이 따르고 이용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설계 대상후보에서 제외하였다.

2) 대상지별 설계 방향

대상지 후보별 설계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은 증기기관차가 보존작업 처리 후 재배치시 원위치의 장소적 이미지가 연출되도록 조성하며, 또한 전시를 통한 교육의 장으로 관람객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변 지형 및 기존 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하고, 문화재 보호시설 및 이용객 편의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후보지별 설계안의 특징으로는 ① ‘독개다리지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해 미기후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임진각 관광지 일원에서 자유로운 진입동선을 연결하였다. ② ‘도라산 평화공원’은 공원의 역사성을 살리고, 동선의 흐름을 고려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며, 공원 내 프로그램과 조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③ ‘임진각관광지’는 장단역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계획하고, 문화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그림 5 참조).

3) 대상지 선정

대상지별 설계안의 현실적 검토와 상호 비교하여 기술적 검토(표 2 참조)를 한 결과, 증기기관차의 역사적 의미가 경의선을 왕래하던 기차였던 점을 감안하여 남북을 잇는 상징적 축선(Axis)인 경의선상의 독개다리지역을 이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V. 기본설계

1. 개념의 전개

1) 보존 및 전시

한국전쟁 당시 피폭된 장단역 증기기관차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임진각휴게소내 보존처리장으로 운송하여 부식제거, 인산/탄닌산 등의 부동태 피막 형성, Paraloid, Wax 등의 피복,

a: 독개다리지역

b: 도라산평화공원

c: 임진각관광지

그림 5. 대상지별 설계안

희생양극법(犧牲陽極法) 등의 전기방식으로 처리하여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의선이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던 우리나라의 종단 교통의 중심이었던 역사를 상징하기 위해 보존처리된 증기기관차를 피폭되어 교각만 남아있는 경의선 철교와 연결되는 축선상에 배치하고, 철도 선로를 도입하여 북으로 달리고 싶은 상징성을 부각하였다(그림 6 참조). 또한 기차 선로를 부설

표 2. 대상지 후보 비교 검토

구분	독개다리지역(선정안)	도라산평화공원지역	임진각 전면부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진각관광지, 평화누리과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에 농지와 임진강이 있음 -한국전쟁 시 파괴된 교각만 있음 -현재는 철조망이 있어 민간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나, 경기도와 군(1사단)의 협력 MOU체결 등에 따라 향후 이용 가능 -'06년 평균 상대습도 61~86%로 전국 평균 68.6%보다 높은 편이고, 임진강의 미기후에 영향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9월에 개장한 도라산 평화공원 내를 대상으로 함 -현재 기관차 위치 예상지는 녹지대 공간임 -도라산역과 통일로를 통해 접근 가능 -공원 내 시설로 DMZ 내 역사와 생태를 교육할 수 있는 전시시설과 테마공간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진각의 전면부에 위치하며, 뒤로는 경의선이 지남 -측면에는 망배단이 위치함 -접근이 용이하며 임진각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 -주차장 부지이용에 관하여 파주시와의 협의 필요
계획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의선 상에 배치되는 장점이 있음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공간 및 동선계획 수립하고, 부족한 폭원은 테크로 처리하여 일정한 보행동선을 유지시킴 -관람공간은 관람객의 안전과 문화재의 보호라는 2가지 사항 우선 고려함 -다양한 각도에서 관람 가능하도록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위치(장단역)의 재현을 통한 역사성 제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살리고 보존 및 훼손 방지 등 관리를 고려한 배치안 작성 -공원 내 프로그램과 조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공원 내 동선과 어울리게 계획하며 문화재를 최대한 느낄 수 있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단역의 상황을 최대한으로 재현하며, 문화재를 근거리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함 -화통의 방향과 파편 등 장단역에서 폭파된 모습을 그대로 재현 -문화재 전시 및 녹지를 두어 휴게공간으로 활용 -주변에 차폐식재를 통한 전시공간에 대한 호기심 유발
공간 구성 및 세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라스식 포토존을 설치하여 보행동선의 단조로움을 탈피하도록 함 -경의선 상에 배치하여 진입부의 입구감을 강조하기 위한 식재 -증기기관차 주변으로 일정 경사(2%)를 주어 배수가 용이하게 함 -진입부와 기관차 근처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도록 함 -전시공간 이전에 포토 존을 두어 입구감을 줌 -자유의 다리에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수목 정리와 수고가 낮은 수목 식재 -계획대상지의 철책을 일부 이동시켜 자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공간은 원위치(장단역)의 상황 재현을 통한 문화재적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조성 -관람/휴게 공간은 관람편의 시설과 포토존 등을 조성 -공원의 역사성을 살리고 동선의 흐름을 고려한 위치 선정 -폐 침목을 활용한 레일은 50m 길이로 설치하고, 시작과 끝은 점토벽돌로 포장함 -레일 주변의 테크포장은 2m 폭으로 조성함 -증기기관차 주변으로 1.5m의 간격을 두어 펜스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보호함 -보행로, 레일, 증기기관차가 설치되는 부분은 주변지형보다 높게 성토하여 문화재에 대한 빗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함 -보행로 주변으로 화관목을 식재하고, 테크포장 외에 최소한의 부대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기기관차 주변으로 테크에 높낮이를 주어 관람과 포토존 역할을 하도록 함 -기존파편을 투명바닥에 아래에 두어 문화재의 보호와 전시효과를 도모 -파편 및 화통 수리과정을 전시하고, 안내판을 이용하여 문화재의 역사를 알리고 교육적 효과를 가지도록 함 -임진각 앞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한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장단역의 증기기관차를 그대로 재현하여 배치함 -증기기관차 하부는 기존 프레임을 지하로 내려 투명한 바닥재를 덮어 내부를 보도록 함 -기존 파편을 기관차 주위에 그대로 배치하고, 진입부와 기관차 근처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의선 상에 배치하여 역사적 의미 부각 -임진각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활용가능 -민통선 밖에 있어 이용객 접근성 용이하고, 대중적 보존 및 관리감시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재현을 통한 문화재적 가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조성 -주변공간을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진각 앞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음 -장단역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함 -투명소재를 사용하여 증기기관차 아래에 파편을 전시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과 철책 이격에 대한 협의 필요 -장소적 특성(임진강 인근)으로 도라산 평화공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개와 다습한 기후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내 시설 중 일부로 인식, 증기기관차 자체의 의미 저하 -관람객 저조(현재 1일 평균입장객 10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주시와 주차장 활용문제에 대한 협의 필요 -경의선상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장소 타당성이 약함

그림 6. 장단역 증기기관차의 옛 경의선 철로선상 배치

하여 공간적 맥락성을 확보하는 환경장치로 기능하게 하였다 (그림 7a 참조).

2) 역사 교육

증기기관차가 한국 동란을 대표하는 중요문화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시설로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임진각, 자유의 다리 등과 상호연계되도록 하여 안보교류 관광지와 유기적으로 조화되도록 하였다.

특히, 장단역에서 있던 증기기관차에서 자라던 야생 뽕나무를 기관차와 함께 전시함으로써 한국 동란의 시대적 아픔을 뒤로한 채 자라난 식물을 대비시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존처리 과정에서 수거된 파편들을 병행 전시하여 경의선의 역사, 피폭 배경, 상징적 의미 등의 환경해설을 통해 증기기관차가 가진 아픈 역사를 이해하도록 하였다(그림 7b 참조).

2. 행로 구성

독개다리 지역은 경의선 상에 배치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

그림 7. 개념별 이미지 예시

므로 좁은 부지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계획을 수립(그림 8 참조)하고, 부족한 폭원은 인공데크로 처리하여 일정한 보행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새로 부설되는 철길과 나란히 세워진 철책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을 달 수 있도록 하여 참여적 염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객들의 관람동선은 순환동선으로 하여 관람 흐름의 지체를 완화하고, 증기기관차를 다양한 높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2.4m 높이의 관람데크를 설치하여 부지 전체를 조망하도록 하였다(그림 9 참조). 또한 이 데크에서 부지 서쪽 너머로 한국동란 당시 피폭된 경의선 철교와 새로 조성된 경의선 철교가 임진강을 가로질러 북으로 향해 뻗어나가는 전경을 감상하도록 하여 통일에 대한 염원을 환기시키도록 하였다.

3. 공간 구성

1) 진입공간

진입공간은 증기기관차의 인지성을 높이고, 진입부의 입구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테라스식 포토존을 설치하여 보행동선의 단조로움을 탈피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지가 임진강관광지 주변 지역에서 접근시 높이차가 있으므로 목재데크 계단을 설

그림 8. 독개다리 기본설계안

그림 9. 주요 부분 단면도

그림 10. 관람데크와 경사지 계단의 원활한 연계 유도

치(그림 10 참조)하고, 장애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장애우용 램프를 설치하였다.

한편, 진입공간 조성시 기존 군사용 철책을 1사단 방향으로 약 3m 이설하도록 하고, 공사진행시 철책이설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군작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였다.

2) 전시공간

증기기관차 이전지의 야외 박물관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전시시설을 위한 해설판을 설치하여 전시공간 및 땡나무에 대한 해설과 별도의 전시대를 설치하여 다양한 관람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시공간에서는

그림 11. 관람데크에서 바라본 임진강과 철교

증기기관차를 다각도에서 관람할 수 있는 관람데크를 설치하여 임진강과 철교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1 참조). 또한 이용객들의 원활한 흐름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친환경적 목재 데크 및 계단 등을 설치하였다.

증기기관차 주변에는 배수가 용이하도록 2%의 일정 경사를 주어 자연 유수가 일어나도록 계획고를 조정하고,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조명계획을 수립하였다.

3) 휴게공간

팔각정은 증기기관차의 안내소 또는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변 철책에는 실랑민들의 애환을 담아 통일

을 염원할 수 있도록 리본을 달 수 있는 염원의 벽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임진강과 연결하고 있으므로 100년 빈도의 홍수위를 고려하여 옹벽을 설치하였다.

4. 세부설계

1) 동선 및 포장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진·출입동선은 기존 동선을 최대한 정비·활용하고, 임진강관광지의 팔각정에서 보행로를 연결하여 자연스런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면을 통한 진입성 및 인지성을 개선하였다.

이용객들의 관람동선은 순환동선으로 하여 관람 흐름의 지체 및 데크 위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였다. 유지·관리동선은 원칙적으로 출입은 불가능하나, 유사시 진입을 위한 시설 연결로 활용하였다(그림 12 참조).

포장재의 선정은 장소의 성격과 공간의 용도에 부합하는 재료와 패턴을 도입하고, 내구성, 경관성,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진입로는 자연스런 경관 조성이 되도록 점토벽돌 등을 포장하여 내구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전시공간은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면서 공간감을 유지할 수 있는 합성목재 등의 자연친

그림 12. 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동선 개념

그림 13. 주요 포장재의 단면 상세

화적 소재를 선택하여 시공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그림 13 참조).

2) 시설물

도입되는 시설물은 각 시설간의 이용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유기적 배치가 되도록 하고, 쾌적한 관람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조, 향, 조망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였다.

증기기관차 주변의 관람데크는 주변 포장면과 레벨을 맞추고, 합성목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증기기관차 및 주변 지역의 조망을 위하여 2.4m 높이의 관람데크를 설치하여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문화재의 훼손 방지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기존 시설과 동일한 소재 및 포장으로 설치하였다. 안내판은 가시성이 높은 색채, 질감 등을 사용하여 진입부와 전시공간, 휴게공간 등의 설치 장소에 배치하였으며, 특히 장애우를 위한 점자블록 및 안내판을 설치하였다(그림 14 참조). 휴식을 위한 시설인 자연소재의 벤치는 관람 및 통과 동선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휴게공간 주변에 설치하였다.

3) 식재

본 대상지는 임진강변에 인접하여 북쪽으로 농경지가 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자유의 다리와 통일연못과의 경계부

그림 14. 무장애시설의 조성

그림 15. 전시공간 주변 도입 초화류

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층층나무 등의 교목과 철쭉, 개나리 등의 관목류가 기존 식생이 있다. 따라서 대상지 주변 기존 식생 및 주변 경관과 자연스런 연계와 자유의 다리에서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기존 수목 정리를 도모하였다.

진입부는 지표성을 제고하여 유도와 경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발톱, 노랑붓꽃 등의 초화류를 도입하고, 진입동선을 따라 경관식재를 하여 동선을 유도하고 계절의 변화감을 부여하였다. 증기기관차 관람데크 주변 전시공간에는 이용객에게 쾌적함 및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통풍을 좋게 하여 문화재인 증기기관차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돌단풍, 벌개미취, 기린초, 수호초, 비비추 등 키가 낮은 초화류를 도입하여 계절에 따라 꽃의 색이 달라지도록 식물을 선정하여 변화를 주었다(그림 15 참조).

한편, 장단역에서 증기기관차 내에 자생하던 뽕나무를 이전 대상지에 이식하여 한국전쟁의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하였으며, 사면부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류를 식재하였다.

VI. 결론

본 설계안은 등록문화재 제78호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의 이전에 따라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역사적 관점, 기념공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문화·관광적 측면에서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설계는 '이전적지 선정'과 '선정 대상지 설계' 등의 2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우선 계획 대상지 후보로 장단역, 도라산평화공원, 독개다리 그리고 임진각 관광지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독개다리'지역을 설계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독개다리 지역의 설계에 있어서는 다음 3가지를 중점으로 설계안을 작성하였다.

첫째, 증기기관차가 문화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기관차 내에 자생하던 뽕나무를 이식하였다. 전시공간 주변으로는 통풍을 위해 초화류를 식재하여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변 관광자원과의 조화를 위해 주변 식생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독개다리 지역은 경의선 상에 배치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좁은 부지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존 지형을 이용한 경사로와 계단 등을 설치하여 일정한 보행환경을 유지하

였다.

셋째, 전시물의 다양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관람데크를 설치하여 수직적 동선 변화를 주었으며, 관람공간은 관람객의 안전과 문화재의 보호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민족에게서 지난 50여 년간 떨어져 있던 '장단역 증기기관차'를 다시 되찾아 주는 작업이다. 설계안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이전지 기념공간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역사의 장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잊혀지지 않은 사건 기록의 장으로 다가와 마주하기 기대한다.

- 주 1. 기관차화통은 길이 15m, 폭 3.5m, 높이 4m로서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400-5에 위치하고 있으며, 증기기관차가 가지는 한국전쟁의 의미와 통일에 대한 교육적, 문화제적 가치가 크다.
- 주 2.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시도기념물, 시도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된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재를 말한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근·현대에 형성된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2001년 7월 시행된 제도이다. 등록문화재의 특성(박동석, 2005)은 첫째, 근·현대의 상징적 건물 및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의 보존을 위한 제도이다. 둘째, 문화재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셋째,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대시기에 건설·제작·형성된 문화재를 그 대상으로 한다. 넷째,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는다.

인용문헌

1. 박동석(2005) 문화재보호법. 서울: 민속원.
2. 유병립(1996) 공원설계에서 기념성의 문제. 한국조경학회지 23(4): 40-49.
3. 이상석(2001)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경디테일의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29(5): 71-83.
4. 이상석(2010a) 한국전쟁 메모리얼의 설계요소에 나타난 기념성. 한국조경학회지 38(1): 12-24.
5. 이상석(2010b) 6·25전쟁 기념공간에 나타난 기념적 표현.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2): 98-108.
6. 한갑석, 박한규(2003) 현대건축에 있어서 기념비성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논문발표집 23(2): 295-298.
7. Wasserman, Judith(1998) To trace the shifting sands: Community, ritual and memorial landscape. Landscape Journal 17: 42-61.
8. <http://www.cha.go.kr>

원 고 점 수 일: 2011년 12월 27일
 심사 일: 2012년 1월 13일(1차)
 2012년 8월 23일(2차)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23일
 4인익명 심사필